

# 인구과잉·기후변화... 인류는 멸종할 것인가

## 인간 이후

마이클 테너슨 지음

1912년, 로버트 스콧 대장이 이끄는 영국 극지탐험대가 남극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최초가 아니었다. 이미 33일이나 앞서 노르웨이 로알 아문센 탐험대가 왔다간 후였다. 게다가 영국탐험대는 악천후와 식량부족으로 생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극에서 채집한 15kg의 화석 표본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중에는 2억 년 전에 멸종한 '종자고사리' 화석도 있었다. 따뜻한 기후에서 살았던 그 나무는 '대륙 이동설'의 명백한 증거였다.



토양 파괴와 항생제 내성, 해양환경 변화는 인류를 '대량멸종'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이다. 지구밖 인류 거주공간 대안으로 화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마션'(감독 리들리 스콧)의 한 장면.

미국 과학전문 저술가인 마이클 테너슨이 쓴 '인간 이후'(The Next Species)는 '대량 멸종'을 테마로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핀다. '대량멸종'은 동식물 종의 75% 이상이 사라지는 일을 뜻한다. 저자는 닭처럼 알을 품거나 나뭇잎에 알을 낳는 개구리가 서식하는 남미 안데스산맥 운무림(雲霧林)을 비롯해 아마존 오지, 하와이 흑등고래 번식지 등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며 '인류의 대량멸종과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탐사한다. '모험'과 '과학'을 결합시킨 저자의 글쓰기 방식은 독자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량멸종'은 화석기록에 동물이 처음 출현한 뒤로 6억 년 동안 5번 일어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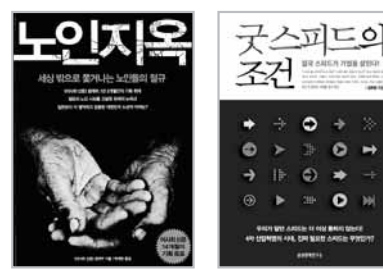
다. 4억4300만년전(오르도비스기)과 3억5900만년전(데본기), 2억5200만년전(페름기), 2억년전(트라이아스기), 6500만년전(백악기)이었다. 방화기가 연달아 찾아오거나 지구온난화, 화산 폭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백악기 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은 1억6000만년동안 군림하던 공룡을 전멸시켰다. 연구결과 지름 12km 크기 소행성이 총알보다 20배 빠른 초속 20km 속도로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멸종'은 진화적 창의성을 부추기기도 한다. 페름기 대멸종이 공룡시대를 열었고, 백악기 대멸종은 포유류와 인류에게 특세할 기회를 제공

했다. 이 책은 '과거 5차례의 대량멸종이 무엇을 말하는지', '호모 사피엔스가 서로 다른 종(種)으로 분화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10만년전 50만 명이던 세계 인구는 1만2000년전 600만 명으로 늘었고 1800년에 10억명, 2000년에는 60억 명에 이르렀다. 지구역사를 24시간으로 보면 불과 자정 몇 초 전에 출현한 현생 인류가 단시간에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천연자원 고갈로 자신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하는 날이 올까? 인류는 타조처럼 생긴 모야세 등 많은 생명체를 멸종시켰고, 자신의 생존마

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자는 '토양 파괴'와 '항생제 내성', '해양환경 변화'에서 인류 멸종을 경고한다. 멸종을 피해 지구 바깥에서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다면 화성이 대안이다. 네덜란드 비영리 기구인 '마스 원'(Mars One)은 화성에 영구 정착촌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저자는 말한다. "여섯 번째 대량멸종도 인류과잉, 고배 풀린 기후변화, 마구 날뛰는 질병, 현생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고갈된 지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일어닥친 여러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 <샘앤파커스·2만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노인지옥= '아사히 신문'이 14개월간 기획 연재한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를 보완·가필해 출간된 책. '노인지옥'을 향해 가는 노인대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제껏 비참한 노후 사례 고발에 집중돼왔던 관심에서 나아가 이를 둘러싼 사회보장제도의 면면과 실제 집행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든다.



<울리시즈·1만5000원>  
▲굿 스피드의 조건=비즈니스 세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빠른 기업'은 시대와 사업 환경에 따라 달라져왔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각 기능의 프로세스가 빠르면 빠른 기업이었고 90년대 들어서는 빠른 전략적 판단이 요구됐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스피드를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발휘해야 할 3세대 스피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3세대 스피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삼성경제연구소·1만5000원>  
▲기억을 기록하다=광주MBC가 엮은 시대의 기록.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파를 탄 951편의 칼럼 중 169편을 선별해 수록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칼럼부터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 여성과 소외된 계층, 청소년과 교육 문제 등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칼럼도 있다. 지역 방송사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제안도 담겨 있다.

▲'성'스러운 국민=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속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탐구한다. 책의 필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본질화하는 사유 방식과 실천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트랜스내셔널 시각을 공유한다. 근대 한국에서 여성, 여성성과 남성, 남성성이라는 젠더 관계가 구축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인식론적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서해문집·1만8000원>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2010년, 전 세계 24개 국어로 번역되며 많은 CEO와 실무자들이 채택하고 한국에서도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마켓 3.0' 발표 이후 7년 만에 나온 '마켓 4.0'. 이 책을 통해 필립 코틀러는 그간 광범위하게 변화한 디지털 경제의 지형과 특성을 한 번에 정리하고 마켓 4.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마케팅 톨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알렘·1만7000원>

<더퀘스트·1만6000원>

# 7가지 키워드로 본 축제... 축제 있는 곳에 가면 행복하다

## 축제에서 일주일

김성일 지음

아무 의미가 없던 공간이 자기만의 삶과 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인생 이야기가 담긴 축제가 있기 때문이다. 축제가 있는 곳에 사는 건 늘 행복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지냈던 문화행정 전문가 김성일씨가 펴낸 '축제에서 일주일'은 우리 삶과 밀접한 축제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의 기획과 교류, 홍보 등으로 보냈던 저자는 풍부한 체험담을 바탕으로 축제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모두 일곱 가지 키워드를 통해 글을 전개해 나간다.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정치와 권력, 종교, 그리고 자연과

일상생활이다. 스페인은 축제와 관광이 결합한 행복 한 사례로 꼽힌다. 한 해 6800만명의 전세계인을 끌어들이는 스페인 관광 자원의 핵심 키워드는 거의 연중무휴로 열리다시피 하는 축제다. 문화예술은 축제의 가장 훌륭한 자랑 분이다. 인구 5만명의 작은 도시 프랑스 앙굴렘을 많은 이들에게 각인 시킨 건 1974년부터 시작된 '앙굴렘 만화페스티벌'이다. 세계 각국의 만화와 관련 영상물이 전시되고 해마다 20만명이 모여드


는 축제는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1947년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문화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에딘버러 국제축제'는 이제 전 세계 공연예술들의 성지가 되었다. 권력을 구가한 통치자들은 예외없이 문화예술과 축제의 애호가이자 후원자였다.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 루이 14세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꽃피운 일등공신이었고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부활을 꿈꿨던 히틀러는 바그너 오페라 추종자로 극적인 연출의 달인이었다. 저자는 25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펼쳐낸다. <가세·1만2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체크무니 무당벌레=유명 동화 작가 엔스 라스무스의 사랑스러운 철학 동화. 제발로 여우 굴에 들어간 토끼, 거인의 머리 카락 속에 사는 원숭이들, 동물의 왕보다 소풍가는 게 더 좋은 코끼리, 체크무니 무당벌레 등 동물나라의 동물들이 의인화되어 들려주는 기묘하고 재미있는 열일곱 가지 우화가 실렸다. <씨드북·1만2000원>  
▲일기 쓰기 딱 좋은 날=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생동기 토끼 담이와 곰이의 일상을 다룬 동화. 학교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누구나 처음은 서툴다'는 메시지로 새 출발을 따뜻하게 격려한다. 아이들이 혼자 읽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예쁘고 귀여운 '오케이티나'의 삽화도 호감을 준다. <시공주니어·1만500원>  
▲세상을 읽어내는 기호 이야기=사회 구성원으로 사람과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



는 어린이를 위해 '기호의 모든 것'을 담았다. 기호가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쓰이는 기호의 형태와 의미, 유래와 그와 관련한 기업의 트레이드마크까지. 기호의 역사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풀과바람·1만2000원>  
▲나쁜 어린이 표=황선미 작가의 학창 시절 스승에 대한 추억과 이제는 다 자라 엄마 품을 떠난 큰 아들의 경험을 모티브로 쓴 동화. 국내 창작 동화 최초로 100쇄를 출간하고, 100만 부 돌파 기록을 세웠던 '나쁜 어린이 표'가 출간 18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왔다. <이마주·9800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공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정가 21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등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게스트하우스 낙안읍성인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정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정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북서측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정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8백1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옥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적합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합부지 투자기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점)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1,192㎡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